

손으로 만든 책에서는  
사람의 체온도 읽을 수 있다

이런 풍경.  
저런 풍경.

이번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일반관람객의 눈길을 많이 끈 곳 중의 한 곳은 북아트 부스. 그 중에서도 도서전 기간 내내 수제 책을 만드는 과정을 시연한 스위스 센트로 텔 벨 리브로 출판사 르네 메스메르(Renate Mesmer·44) 씨의 섬세한 손길에 관람객들은 발길을 자주 멈췄다. 수제 책은 하드 커버 표지를 풀로 붙이고 표지 그림을 그려넣는 한편, 색색의 실을 바느질해 제본까지 마치는 과정을 거쳐 탄생한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회귀본의 가치 때문에 '투자 대상'이 되기도 한다.

르네 메스메르 씨가 수제 책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스물네 살 때부터. 20년 경력의 베테랑이다.

"손으로 만드는 책은 사람의 손길이 배어 있기 때문에 더 오래 간직하게 되고, 글도 더 예뻐 어린 눈으로 보게 됩니다. 내가 만든 책을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바느질할 때마다 더 정성을 쏟게 됩니다."

르네 메스메르 씨는 이번 시연을 위해 스위스에서 풀 가위 칼 송곳 물감 붓 등



이 등을 공수해 왔다. 손에 익은 가위를 쓰야 제대로 시연할 수 있기 때문인데, 관람객들이 지나치게 관심을 보인다 싶으면 책 만드는 도구들을 비닐로 덮어놓는 등 '정보 보호'에도 신경 쓰는 눈치였다.

"수제 책 아티스트가 되려면 손재주도 좋아야 하지만 창의력이 좋아야 합니다. 책 내용과 표지에 따라서 바늘과 실 가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책 값은 회사에서 결정합니다. 저는 그저 열심히 책을 만들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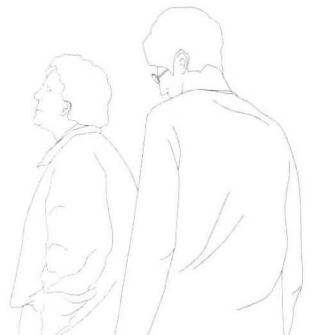
바느질을 할 수 없을 때까지 손으로 책을 만드는 일을 하겠다고 밝힌 르네 메스메르 씨는 '영문판 <출판저널>도 발행하는 나고 관심을 보였다. [출판저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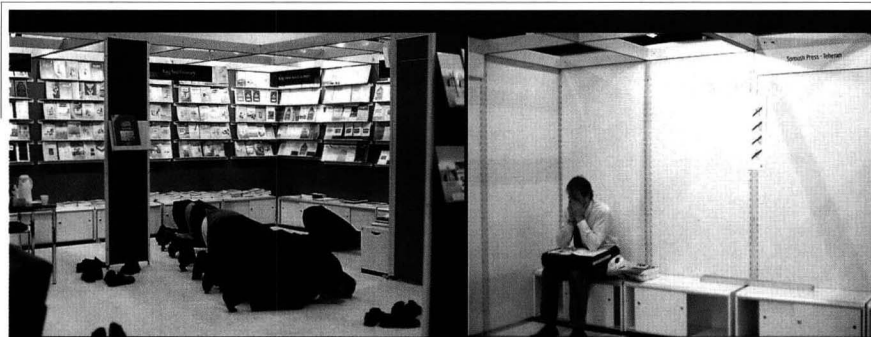
**01** 2003년 주빈국 러시아 주빈국관에 전시된 벽화 두 장이 도난당해 러시아관에는 한때 긴장감이 감돌았다. 다행히 범인이 시내 식당에서 검거돼 그리고리에프 러시아 조직위원장을 비롯 관계자들이 겨우 한숨을 돌리기도.

벽화를 훔친 범인은 프랑스 사람으로 밝혀졌는데, 범인이 유유자적 프랑크푸르트 시내 식당에 들고 가 탁자에 올려 놓고 점심을 먹다가 검거됐다는 후문. 이번 도서전에 참가한 러시아 작가가 마침 이 식당에 들렀다가 러시아 주재관에 있어야 할 벽화가 식탁에 놓인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

조국의 벽화를 한눈에 알아본 러시아 작가의 눈썰미도 대단하지만 벽화를 들둘 말아 두 손에 받쳐들고 러시아관을 찾은 경찰들의 모습은 당당하기 이를 데 없었다.

**02**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도 세계적인 불경기의 여파가 감





사우디아라비아 관람객이 전시장을 찾아 메카를 향해 기도를 하고 있다.(왼쪽) 참가를 약속했다가 불참한 출판사들의 비어있는 부스. 이 부스들도 다리가 아픈 관람객들에게는 좋은 휴식공간이 됐다.(오른쪽)



거대한 나무를 전시, 새삼 종이와 나무의 삶을 되돌아보게 한 환경캠페인 이벤트.

지됐다. 전시 참여를 약속했다가 취소하는 바람에 출판사 이름만 걸린 채 텅 비어 있는 부스가 10여 곳 이상 발견된 것. 비어 있는 부스 중 상당수는 아랍권이었는데, 텅 빈 부스를 지나치던 한 출판인은 '세계적인 부호 국가들도 출판 불경기는 어쩔 수 없는 모양'이라며 안쓰러운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03** 사우디아라비아 국가관을 찾은 사우디아라비아인들이 책 구경을 하기 앞서 자신들의 메카 방향을 향해 절하는 모습이 연출돼 이들의 종교관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독일인들이 실소를 자아내는 등 희귀한 풍경이 빚어졌다. 또한 일부 아랍권 출판사 직원은 <출판저널> 기자에게 회사에 제출할 기념사진이 필요하다며 '사진값이 얼마나 고 지갑 꺼내는 시늉을 하는 등 대외용 제스처에도 열심이었다.

**04** 러시아 주제관 앞의 광장에서는 한 자동차 회사가 자신들이 개발한 소형차

시승회장을 마련, 자동차 마니아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등 인기를 끌었다. 마니아들은 왕복 3백미터 거리를 전속력으로 달리는가 하면 어떤 시승자는 시속 10킬로미터 이하로 달려 광장에 임시로 마련한 시승도로가 때아닌 교통 체증을 빚기도 했다. 시승식을 마련한 자동차 회사측은 소형차이지만 성능은 중형차 못지않다면서 이번 홍보전이 자동차 판매 증대에 획기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믿는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한편 실외 전시장과는 별도로 4홀에서도 자동차 회사들이 대규모 부스를 빌려 자동차관을 마련하는 등 세계인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판촉전을 벌이는 모습이었다.

**05** 러시아 주제관과 3홀, 4홀을 둘러싸고 있는 광장 한쪽에서는 환경단체가 거대한 나무 한 그루를 전시해 놓고 환경보호 캠페인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이런 캠페인을 하게 된 것은 책의 주원료가 나무이기 때문. 이들은 나무와 함께 벌목할 때

쓰는 톱, 도끼, 삽도 전시해 책을 위해 희생되는 나무의 아픔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려 애쓴 흔적이 역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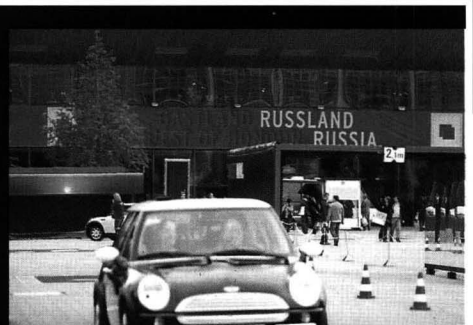
**06** 영미권 부스를 방문한 관람객들은 미국 경찰이 부스 입구에서 가방 검색을 하는 등 강력한 출입통제를 실시하는 바람에 언짢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테러 방지를 위해 교육지책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비행기 탑승 때보다 철저한 검색 방식에 대해 이들은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미국관만 따로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멘 소리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경찰들은 'sorry' 만 연발했다.

**07** 한국의 2005년 주빈국 조인식에서 느닷없이 차범근과 차두리 선수 얘기가 만발해 조인식장에 웃음꽃이 피었다. 조인식이 끝난 후 기자와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이 되자 한 중년 독일인이 '차범근도 훌륭하지만 차두리 선수 역시 프랑크



영미권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검색을 받아야 해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무하마드 알리의 일대기 출간을 홍보하기 위한 대형 부스. (왼쪽) 2004년 주빈국으로 선정된 아랍국가 연합 중의 한 나라인 이집트 부스. (오른쪽)

도서전 광장에서 연일 계속된 미니카 시승식장.

푸르트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 그러니 주빈국 행사도 잘 될 것'이라며 덕담을 건넸. 예리한 질문이 나올까봐 잔뜩 긴장하고 있던 폴커 노이만 독일 위원장과 출판문화협회 이정일 회장은 만면에 웃음을 띠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08** 프랑크푸르트 전시관을 모두 둘러보는 데 지친 한 여성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전시관과 전시관 사이의 복도를 질주해 눈길을 끌었다. 사실, 전시관 전체를 둘러보려면 주마간산격으로 훑어보는 데도 2,3일은 족히 걸리는 게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게다가 하루종일 전시관을 둘러보고 나면 다음날은 다리가 아파 제대로 걷는 데 힘이 부칠 정도. 이런 정황을 미리 감안한 듯 인라인 스케이트를 준비해 온 여성을 향해 사람들은 잔뜩 부러운 시선을 보냈다.

**09** 한국에서 500여 명의 대규모 참가자가 몰려가자 가장 반색한 곳은 한국식당.

전시장에서 5분 거리에 있는 길손식당과 택시로 10분 거리에 있는 미스터리 식당은 연일 손님이 밀어닥쳐 예약 손님만 소화하기에도 바쁜 눈치. 다행히 식탁을 차지한 한국인들이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자리를 일찍 비워주는 바람에 끼니를 거르고 돌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들 식당의 손님 중 30퍼센트 정도는 외국인들이었다. 한국식당의 인기 메뉴는 당연히 김치찌개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빵과 소시지로 텅텅해진 입맛을 되돌려 개운한 모습.

**10** 유럽의 가을 날씨는 원래 싸늘하지만 이번 도서전 기간 동안의 프랑크푸르트 날씨의 예년보다 3,4도 가량 낮은 온도를 보여 유럽도 이상기후와 무관치 않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했다. 특히 개막일을 전후로 계속 비가 내려 한국 출판 관계자들은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11** 올해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는 이벤트화된 작가 초청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었다. 오정희 씨가 소설 <새>로 독일의 주요 문학상 중 하나인 '리베라투르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7일 프랑크푸르트 문학의 집에서 작품낭독회를 가졌으며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양철북>의 작가 권타라스는 신작시집 <마지막 춤> 낭송회를 댄스파티 형식으로 꾸민 가운데 여성무용수와 함께 춤을 추어보이기도 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와 함께 브라질 작가 파울로 코엘료는 출세작인 <연금술사>의 56개 국가별 번역본을 한자리에 놓고 사인회를 열어 환호를 받았다. 사인회 부문 기네스북에 오를 것이라는 코엘료의 <연금술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됐으며 1990년 이후 지금까지 5,500만부가 팔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조직위원회가 제정한 2003년 '평화상'에는 미국의 진보지식인이자 작가인 수전 손탁이 선정됐다. ☞